

39년 광주시립발레단과 동고동락...31일 정년퇴임 이재승 운영실장

연출 맡은 '명성황후' 中 공연 기억 남아

토목 전공후 조선대 무용과 재입학 박금자·박경숙 등 6명 감독과 작업 상임단원으로 무용수·무대감독 맡아 "발레단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 1976년 창단해 지금까지 고전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등을 비롯해 창작발레 '장희빈', '서동요', '명성황후'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광주 시민과 만나왔다.

발레단의 이 모든 역사를 함께해 온 사람이 있다. 바로 오는 31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재승(61) 운영실장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발레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이 실장은 "퇴임이 몇일 안났는데 밀린 일을 하느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이곳에서 39년을 보내다보니 정리할 짐도 많다.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했는데 큰일이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발레단 박금자 초대 감독부터 박경숙·이영애·김유미·신순주·최태지 등 6명의 감독들과 함께 일했다.

1979년 발레단과 인연을 맺은 그는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했다. 조선대 무용과 다니는 선배와 어울려다니다가 초대 단장인 박금자 예술감독 눈에 띄었고 그때부터 정식단원은 아니었지만 발레단 무대에 오르곤 했다. 1981년 조선대 무용과에 재입학하면서 발레단 연구단원으로 활동, 본격적으로 무용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실장은 "청년시절 키도 크고 체격적인 조건

이 좋았던 덕분에 박금자 선생님께서 발레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던 것 같다"며 "그때는 제일 말단이 연구단원이었다. 연구단원부터 시작했는데 운영실장까지 뛴출 뛴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형님께서 연극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대 쪽 일에 관심이 많았죠. 박금자 선생님께서는 무용수가 필요해 저를 데려다 쓰셨는데, 정작 저는 무대 위보다는 무대 뒷일에 더 신경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6년 비상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무대감독 역할을 같이 했죠. 이후 1992년부터는 상임단원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후 29년 8개

월을 상임단원으로 관객과 만났습니다."

39년간 발레단과 함께 해왔지만 몇번의 유혹도 있었다. 장르별로 감독이 필요했던 국립극장에서 스카웃 제의를 해온 것이다. 서울에 대한 별다른 동경이 없던 그는 제의를 고사했다. 결혼 이후 한번의 제의가 더 있었지만 그때는 고향에 자리잡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발레단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2003년 운영실장 일을 맡게 됐다. 그는 창작발레 작품을 만들어 해외에서 공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창작발레 '명성황후'를 제작해 중국에 진출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사업에 힘썼고 특히 2009년에는 북경, 항주, 광저우, 길림성, 장춘 등 중국 5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히트친 '명성황후'는 제가 직접 연출했어요. '심청' 대본도 제가 직접 썼죠. '심청'은 미국 공연에서 교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전통발레보다는 한국식 창작발레로 해외에서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해외공연을 위한 작품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면 굉장한 보람을 느껴요."

지난 19일 마지막 공연인 '잡자는 숲속의 미녀'를 마친 그는 퇴임식만 남겨둔 상태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한 직장에서 오랜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보니 아무 탈 없이 이자리까지 온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자로서 발레단 일을 맡아 했다면, 앞으로는 영원한 발레단의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발레단이 국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작품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길 바랍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을 만나다

30일 광주문예회관 모차르트 연주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선우예권(사진)이 광주에 온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기획공연 포시즌 마지막 시리즈로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선우예권은 반 클라이번 우승 외에도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동 프 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윌리엄 카벨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데카(Decca) 레이블에서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MOZART)'를 발매한 그는



이날 공연에서 모차르트와 쇼팽의 곡을 연주한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 '환상곡 K. 397, K. 475'과 '소나타 8번', '론도 K.511'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쇼팽의 '녹턴 Op. 55', '환상곡 Op. 49', '베토벤 Op. 60' 등을 연주한다. 공연의 대미는 오페라 '돈 조반니'의 '라 치 다렌 라 마노'에 의한 변주곡으로 장식한다.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운명 극복 의지 아름다운 서정으로 그려

이효복 시인 첫 시집 '나를...' 펴내

장성 출신 이효복 시인이 첫 시집 '나를 가져오지 못했다'(문학들)를 펴냈다.

지난 1976년 '시문학'에 '눈동자'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이 44년 만에 작품집을 발간한 것. 오랫동안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오면서 시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화가 홍성담이 "20대 소녀 시절에 깔끔한 시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다가 어딘가로 숨어 버렸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표현처럼, 이번 시집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작품집에는 '아나키아'라는 말이 등장한다. 알려진 대로 '아나키아'라는 말은 노르드담 대성당 벽 한구석에 희랍어로 새겨져 있다. 원래의 뜻은 '숙명'. 우리가 흔히 '노르드담의 꿈'로 기억하는 책 '노르드담 드 파리'의 집필 동기가 된 말이기도 하다.

"아직도 내 노래가 울리고 있어요/ 한번만 내 노래를 울리게 해주세요/ 노르드담 대성당 뒤편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종지기 짝추 과지모도/ 자유로운 영혼의 집시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가장 어두운 어둠/ 파멸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 눈부신 아나키아의 시계/ 숙명.."

대표작 '아, 나의 슬픈 과지모도'는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름다운 서정으로 그려냈다. 물론 시인의 시집과 '노르드담 드 파리'와는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 시에 대한 시인의 열망을 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80년 5월 항쟁의 상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사연 등이 형상화돼 있다.

한편 이효복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시집 '풀빛도 물빛도 하나로 만나'를 펴냈다. 시집 출판회가 오는 2021년 1월 16일 오후 4시 화순 시카페 '첫눈'(도곡면 원화리 282-2)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터 '금복음악다방',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

고마나루연극제 금상 수상도

극단 터(대표 임준형)의 작품 '금복음악다방'(사진)이 제13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에 선정됐다. '금복음악다방'은 지난달 열린 제17회 고마나루연극제에서도 금상을 수상해 겹경사를 맞게 됐다.

연극 '금복음악다방'은 지역에서 30여년간 연극 활동을 해온 박규상의 첫 희곡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끌려간 남녀의 엇갈린 인연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80년 5월 당시 대학가의 인기 DJ였던 강민과 선주라는 인물을 통해 그 시대의 음악다방의 풍경과 젊은이들의 사랑을 보여준다.

연출은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영화 교수(호남대 미디어영상공학과)가 맡았으며 정순기·류지영·송정우·고난영·조혜수·이현



가·김주열 등이 출연했다.

특히 '바위섬'을 작사, 작곡한 배창희 교수(남부대 스포츠 레저학과)가 통기타 가수로 특별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임준형 극단 터 대표는 "올해 5·18 40주년을 맞아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로 시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지원사업 종합 정보 제공 '아트누리' 개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아트누리'(artnuri.or.kr, 아트누리.kr)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누리집에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제부선한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한다.

지금까지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별로 제공함에 따라 예술인과 예술단체들

이 필요할 때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예술인들은 '아트누리'에서 제공하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검색, 지역·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알림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지역과 관심 예술 분야 등의 개인정보를 '아트누리'에 미리 입력하면 이에 맞는 지원사업 공고가 게시됐을 때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해준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

www.yhbeco.co.kr